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일임해서 놔라, 믿어라, 물러서지 말라

모든 것 함이 없이 하라시는데

질문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하라 하시는데 도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저희들이 과연 함이 없는 행을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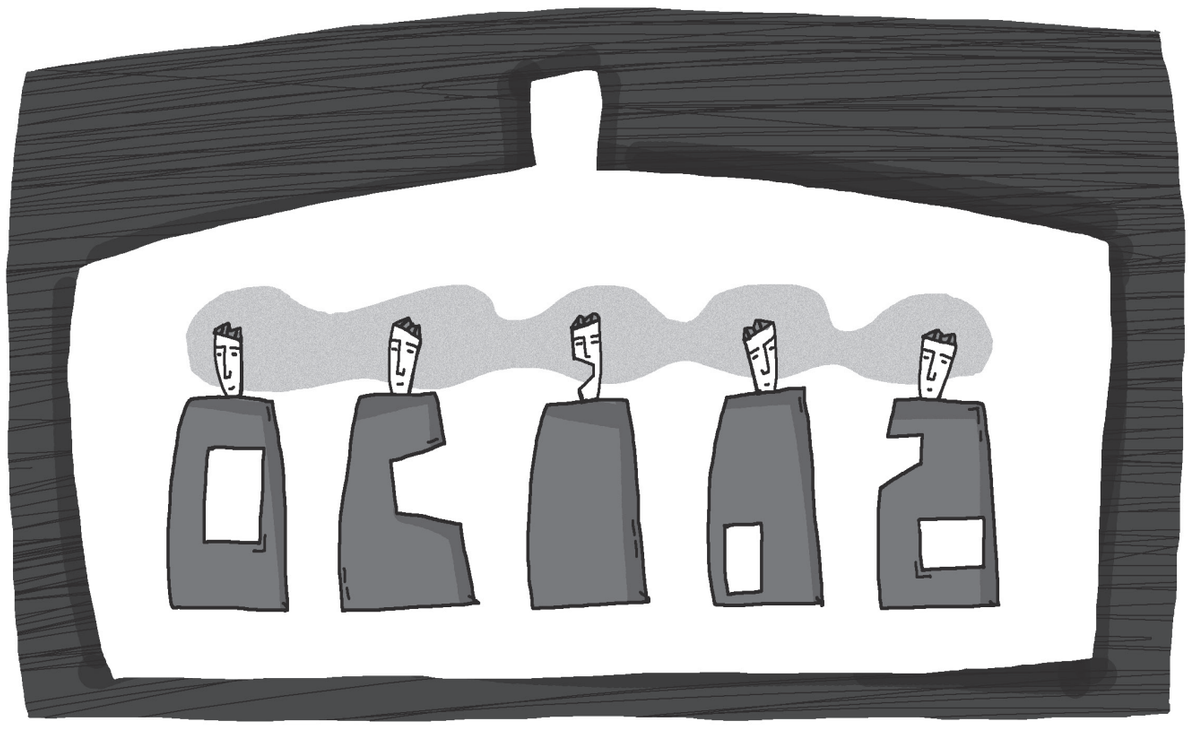
답변 그렇습니다. 도라는 건 생활이 도예요, 생활이. 딴 데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버리고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릴 버리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그냥 평전한 생활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도를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이거를 버리고 뛰어넘으세요. 버리라니깐 그냥 아예 그냥 저 개천에다 꼬라박지 마시고 자기 원소에다가,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냥 놔 버리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예요, 그냥. 이게 도는 무슨 별다르게 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을 원망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말 할 거 없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하시면서 남을 존경하고…. 이렇게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존경하시란 말입니다. 나쁘든지 좋든지 존경하란 말입니다. 무슨 좋은 사람만 존경하고 나쁜 사람은 존경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이 있다 하면은 존경하란 얘깁니다.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찰나찰나 바뀌지니깐요.

그걸 한번 응용해 보시면 이게 사람 마음이, 모습은 그냥 놔두고도 마음이 뭐, 한 찰나에 다른 혹성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을 한번 지어서 잘해 보세요, 진짜로 믿고. 그러면 자기 주인공이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지장이 되고, 때로는 칠성이 되고, 때로는 허공신이 되고, 때로는 용신이 되고 그냥 당신이 필요한 대로 돌아가서 화하니깐요.

여러분이 다들 이 소리를 잘 들어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도인 아닌 도인으로 사는 거죠. 알지 못하지만 행은 도인의 행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머리 안 깎았다고 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산할 때에 머리를 깎는데,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덧없이 그냥 이렇게 자라는 풀들, 이거 깎아 버리고 원 하나만 남기려고 이렇게 머리 깎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면 뭘 합니까. 깎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림 · 최주현

이 깎고 나면 또 자란다. 또 자라면 마찬가지가 되는데 또 자라도 나지 않는, 머리가 나지 않고도 남이 있다면….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또 머리 깎지 않으면서도 깎고, 깎으면서도 깎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남을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욕을 하는 것도 그 이해를 못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공신이다, 부처님이 만 개라도 일 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깐 어떠한 신이든지 그저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꽃 이렇게 핀 거 보면 좋죠? 보기 좋죠? 이 우담바라꽃이라고 하는, 이 연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그렇게 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만 못지않게 아름다우니깐 바깥으로 내서 방편으로 그거 말씀한 겁니다. 꽃입니다, 그게.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하면 이 꽃이 날아다니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뭡니까? 그냥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찰나찰나 행하신다, 함이 없이 하신다 이겁니다.

화두 참선을 했었는데

질문 전에 어느 스님께 무 자 화두를 받고 화두 참선을 했었는데 진전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참선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금 각 절에서나 신도 여러분이나 스님네들이나 다 각자가 큰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서 좌선을 한다 하는데 한번 이런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의 언어로 말한다면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空)했는데 무엇을 가질 게 있고 놓을 게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만 알았지 뜻을 모를 때는 안 것 그 자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작해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줬다 그러면 이차적으로 '이 화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삼차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서 앉으나 서나 끊기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좌선을 해도 이것을 꼭 가지고 '뭣고 뭣고 뭣고'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써 공했기 때문에,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은 뭐냐?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거를 나쁘다 좋다 해 왔고, 여러분이 다 움죽거리고 있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 못 하고 남한테 이끌려 가는 것도 바로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준 화두, 바로 이것을 꽉 쥐고 굴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가 돌아가고 머물렀다 돌아가고 이것이 한정 없이, 어느 한군데 고정적으로 국한된 게 없이 전부 변천해 돌아가고 부서져 버리고 상해 버리고, 또 나는 만날 때마다 변하고 또 말할 때마다 딴 말 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딴 사람 만나서 딴 사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갖가지로 소소영영하게 가지고 소소영영하게 하면서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가 간다는 얘기죠. 놓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랬으니 항상 그릇은 비어 있다는 얘긴데, 마음으로 만들어서 지어 가지고, 문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 큰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걸 쥐고서는 그거를 놓질 못하고 가기 때문에, 되려 자기 마음이 자기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참선이 어떤 것이 참선이냐. 참선은, 행선도 참선이요 좌선도 참선이요 입선도 참선이요, 모든 행 전부가,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 결제가 되면 한 철 선방에 가서 나야지. 앉아서 좌선을 해야 그것이 으뜸이지.' 요렇게 변경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것을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 A18면으로 계속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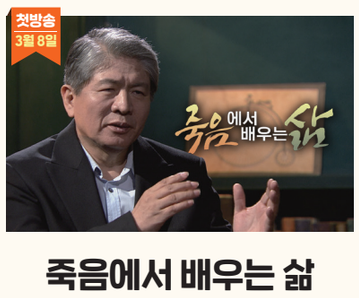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신규프로그램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불법(佛法)유턴
매주 (월)12:00, 20:30
(토)19:30



죽음에서 배우는 삶
매주 (수)13:00, 20:30
(일)22:50



남을 위해 기도하라 – 자비도량참법
매주 (수)14:00, 22:30
(토)07:30



아름다운 사람들
매주 (수)09:30, 21: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매주 (목)09:30, 21:30



구구절절 주련 이야기
매주 (화)15:30 / (목)14:30
(금)23:25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